

제작자: 오르비 공군 사관학교(d e d l b o) (무단복제, 영리적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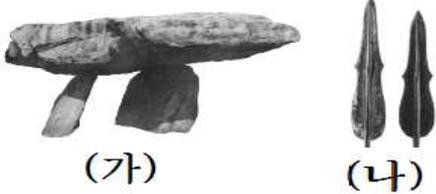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성명		수험번호					3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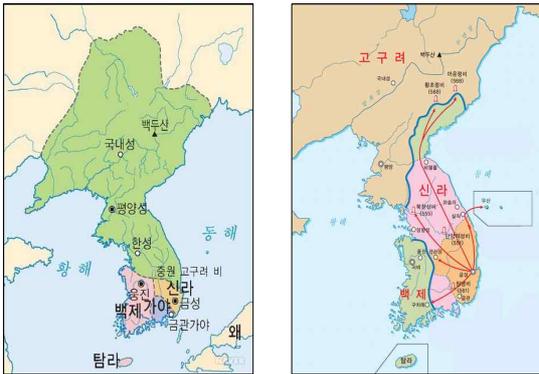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가), (나) 유물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애니미즘, 토테미즘이 발생한 시기에 처음 제작되었다.
- ② 이동생활을 하던 시절에 처음 제작되었다.
- ③ 강력한 군장의 힘을 상징한다.
- ④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유적지에서 발견된다.
- ⑤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보여준다.

2. (가), (나) 사이 시기에 일어난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①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② 신라와 대가야가 결혼동맹을 맺었다.
- ③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고, 백제와 왜를 격퇴하였다.
- ④ 백제와 남조가 교류하였다.
- ⑤ 신라의 왕호가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화하였다.

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새 법령을 시행하면서 공신과의 정면충돌이 시작되었다. 새 법령은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서 전에 양민이었던 자를 해방하려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가)는 노비를 풀어 주어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신장시키고자 했다. (가)가 새 법령을 시행하자 공신세력들의 불만은 엄청났다. 공신 세력을 대표하여 배우자인 대목황후가 그 처지를 대변하였지만, (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 ① 후삼국을 통일하고 후대 왕들에게 훈요10조를 남겼다.
- ② 기철 등 권문세족을 숙청하였다.
- ③ 연등회와 팔관회를 제한하였다.
- ④ 5도 양계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하였다.
- ⑤ 창제건원을 하여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였다.

4. 다음은 어떤 세금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징수 계획안이다. 이 세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군문을 합치고 군사비를 절약하여 얻는 재원이 약 10만 냥
- ② 선혜청과 지방관청 경비의 일부를 이하하여 얻는 재원 약 7만 냥
- ③ 놓고 있는 한정을 수괄하여 매인당 선무군관포 1필씩을 부과하여 얻는 재원 5만 냥.
- ④ 어장 및 어전세·염세·선세의 수세로 얻는 10만 냥

- ① 세금을 영원히 1결당 4두로 고정하였다.
- ②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선혜청을 설치하고 시행하였다.
- ③ 사창제를 실시하여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였다.
- ④ 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축하였다.
- ⑤ 지계를 발급하고 근대적 토지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5. (가)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가 서얼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넓힌 '정유절목'을 발표하고 규장각에 검서관 제도를 두어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의 학식 있는 서얼 출신들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차별 완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폐습의 뿌리를 없애지 못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 ㄱ.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 ㄴ.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 ㄷ.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ㄹ.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6.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이 인물이 섭정할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치 않는다.”

- ①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 ② 외규장각 의례가 약탈당하였다.
- ③ 5군영과 삼군부가 다시 설치되었다.
- ④ 중전의 장례식을 치렀다.
- ⑤ 조선이 최초로 서양과 조약을 맺었다.

7. (가), (나) 조약이 체결된 사이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 (가) 1.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본 선박에 대한 항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 (나): 1. 조선과 미국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경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사를 거친 뒤에 필수 상조하여 잘 조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14.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준다.

- ① 구식군인들이 차별대우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다.
- ② 조선을 중립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 ③ 광성진에서 어제연 장군이 분전하였다.
- ④ 수신사가 들여온 책의 내용 때문에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
- ⑤ 조선이 천주교의 포교권을 인정하였다.

8. 다음 가상일기가 작성될 무렵 조선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1xxx년xx월xx일 맑음

오늘도 역시 우리 집 앞에는 철도 공사가 한창이다. 얼마 전에는 지나가던 전차에 아이가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 듯하다. 한양과 개항장(부산)을 잇는 철도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완공된다고 한다. 아, 그리고 제물포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편지로 소식을 전해 오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 ① 정부의 명으로 간도에 파견된 간도관리사 이범윤
- ②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천주교 신도
- ③ 원각사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학생
- ④ 한성전기회사에 다니는 직원
- ⑤ 황성신문을 읽고 있는 유생

9. 다음 그림과 관련된 사건을 일으킨 주도세력이 한 발언을 학생들이 추론하여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본군이 우리를 잘 호위해 줘야 할 텐데..
- ② 일본의 개혁을 바탕으로 한 개혁에 꼭 성공할 테야
- ③ 토지개혁을 진행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테야
- ④ 우정국 개국축하엔 날을 기사일로 잡자.
- ⑤ 신분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어.

10. (가), (나) 조약 체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 (가): <제1조>, 일본국정부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권하에 1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할 권리를 가진다.
- (나): 1.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2.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5.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에 용빙할 것
 6.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 ① '시일야방성대곡'이 신문에 게재되었다.
- ②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였다.
- ③ 황현이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 ④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당하였다.
- ⑤ 일본이 전쟁 중에 독도를 강제 점령, 편입시켰다.

11. 다음 표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장소	내용
고부	고부군수 조병갑에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키다.
백산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에 분개하여 백산에서 봉기하다.
황도현	황도현에서의 전투에서 관군에게 승리하다.
(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하다.

- ① 전주성에 입성하다.
- ②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다.
- ③ 조토사 홍계훈과 화약을 맺다.
- ④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다.
- ⑤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다.

12. 다음 법령이 제정된 시기의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채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인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ㄱ. 도 평의회, 부면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였다.
 ㄴ.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발표하여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였다.
 ㄷ.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탄압하였다.
 ㄹ. 총동원령을 발표하여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3. (가), (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가): 5월 국권반환요구서를 전국의 조직을 통해 일제히 발송하고 360여개 처에서 일제히 국권반환과 일본군 철병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월 23일 단원 김창식이 붙잡힘으로써 조직이 발각 되었으며, 주요 임원과 임병찬이 일본경찰에 잡히고 단체는 해체되었다.

(나) ① 부호의 의견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②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③ 중국·러시아 등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④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목적을 달성한다는 강령을 내세웠다.

- ① (가):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 ② (가): 의병을 이끌었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 ③ (나): 대구에서 조직되었다.
- ④ (나): 조직원 중 일부가 후에 북로군정서를 조직하였다.
- ⑤ (가), (나): 공화정체를 지향하였다.

14.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조선혁명당, (가), 한국독립당은 이제부터 다시 존재할 조건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각기 해소될 것을 전제로 하고 신당 창립에 착수하였다. (중 략) 그러므로 신당은 보다 큰 권위, 보다 많은 인원, 보다 광대한 성세, 보다 고급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보다 유력하게 추진케 할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며 3당 자신은 이에 해소됨을 선언한다.

- ① 중국 난징에서 조직된 최초의 좌우합작 단체이다.
- ② 대한독립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 ③ 임시정부의 직속 군사기관이었다.
- ④ 민족혁명당설립에 반대하여 김구가 조직하였다.
- ⑤ 조선의 독립을 저해하는 반동세력을 박멸하고자 하였다.

15. (가)~(다)를 주장한 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점]

(가):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오늘날 우리의 형체는 이미 훼손되고 말았으나, 정신만큼은 고고히 남아 존재하고 있으니, 이 통사는 바로 이런 뜻에서 쓰는 것이다.

(나):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 아니라,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 아니라.

(다):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다소의 차이가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 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 보편성에 따라 전개되어 왔다.

ㄱ. (가), (나)는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ㄴ. (나), (다)는 랑케사학의 실증적 연구방법을 표방하였다.
 ㄷ. (다)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ㄹ. (가), (나), (다)는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맞아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6. 다음에서 설명하는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이(李) 장군을 총사령으로 삼아 중경(重慶)에서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서쪽으로 날아온 외빈이 모두 눈을 부릅뜨며 놀라워하고 기뻐하며 한국의 독립은 이의 거행에 있다며 전선의 장령을 원하였다. 그러므로 당파와 주의를 불문하고 진정 항적건국(抗敵建國)하고 도왜구한(倒倭救韓)의 깃발을 드는 자라면 아마도 풍문을 듣고 일어서 한 기치아래에 모여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 군대와 연합을 조성하고 한 번의 북소리에 5백만 의용군의 항일 역량을 얻을 것이요, 두 번의 북소리에 5백만 의용군의 항일 역량을 얻을 것이요, 두 번의 북소리에 13억 민족의 성원과 동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보잘것없는 적을 박멸하는 데 썩은 나무 꺾듯 하여 죽히 조국을 위해 원수를 갚고 우방을 위해 부끄러움을 씻고 마침내 독립을 완성하고 민족을 해방할 것이다.

- ①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②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조선혁명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테러활동을 하였다.
- ④ 임시정부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⑤ 중국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되었다.

17. (가), (나)가 발언된 사이의 시기의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가)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
(나): 한국인민의 자유와 독립이 조속히 달성되도록 국제 연합 한국임시위원단과 더불어 상의 할 수 있을 한국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중략) 소총의회 의견으로는 총회 의결 여러 조항에 따라 또한 그 일자이후 한국 관계 사태의 진전에 비추어 국제 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 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

- ①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②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 ③ UN임시위원단의 입북이 거부되었다.
- ④ 김구가 남북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석하였다.
- ⑤ 신한공사가 귀속재산을 처리하고 있었다.

18. 다음 조문을 규정한 헌법이 적용된 시기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행위 금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수업·연구 또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정치 관여행위 금지
△이 조치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② 중앙정보부장이 밀사로 평양에 다녀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③ 서울 올림픽 유치를 확정하였다.
- ④ 시민들이 신군부 퇴진, 호헌철폐를 요구하며 시위하였다.
- ⑤ 노사정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 (가), (나)합의 사이의 시기의 일로 옳은 것은? [3 점]

(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한다.
(나)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중략)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위해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의 교류로서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한다.

- ①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조직되었다.
- ② 남북 적십자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 ③ 경의선 복구사업이 시작되었다.
- ④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 ⑤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20. 다음 사건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기붕을 설득하여 모든 정치활동으로부터 물러나도록 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이어 당시 부통령이었던 장면은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장면은 부통령으로서 자기가 이승만의 사임으로 대통령직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는 한, 이승만은 결코 대통령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시위대들은 새로운 선거의 실시 대신에 이승만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다.
· 시위의 중심이 광주·순천 등지로 옮겨져 이 지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는 한편, 시위구호도 <독재타도>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등으로 격화되면서 군 투입설이 나도는 가운데 20일 국본은 성명을 발표, △4·13조치 철회 △집회시위 및 언론자유 보장 △최루탄 사용중지 등 4개항을 요구하였다.

- ① 학생의 죽음이 시위를 격화시켰다.
- ②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 ③ 계엄군이 투입되었다.
- ④ 평화적 여야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
- ⑤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